

낭원군 이간의 교훈시조 연구

민 경 서*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교훈시조 창작의 배경
- III. 『청구영언』 소재 교훈시조의 지향
 - 1. 도덕적 삶의 자세와 실천의 당부
 - 2. 오륜(五倫)의 취택과 전달
 - 3. 향당(鄉黨)의 윤리와 책무 의식
- IV. 나가며

국문초록 | 본고는 17세기의 종친(宗親) 낭원군 이간(朗原君 李偁, 1640-1699)이 창작한 30수의 시조 작품 중 교훈시조 작품 11수의 창작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작품의 구성 및 특징을 살펴 그 가치와 의의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간의 교훈시조 창작 배경은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수록된 이하조(李賀朝, 1664-1770)의 <발문(跋文)>, 이재(李穡, 1680-1746)가 쓴 이간의 <묘갈명(墓碣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통해 검토되었다. 그 결과, 이간의 생애에서 효행의 중시, 강학의 강조, 유교적 의례 엄수 등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의 창작 동기가 단순한 관념적 자의식의 충족이 아닌, 종친으로서 유교적 덕목을 왕실은 물론 민간에까지 전파하고자 했던 책무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청구영언』에 군집화 되어 수록된 11수의 교훈시조는 ‘도덕적 삶의 자세와 실천의 당부’, ‘오륜(五倫)의 취택과 전달’, ‘향당(鄉黨)의 윤리와 책무 의식’으

* 閔慶瑞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kkyeongseo@ewhain.net
투고일: 2025. 11. 12. 심사완료일: 2025. 12. 15. 게재확정일: 2026. 1. 12.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9..37>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개인의 수신(修身)에서 시작된 윤리적 실천이 오류를 거쳐 향당이라는 사회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도덕적 이념 흥포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미진했던 이간 시조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교훈시조 작품군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적 검토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핵심어 |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儼), 종친(宗親), 교훈시조(敎訓時調), 오륜(五倫), 청구영언(靑丘永言), 17세기

I. 들어가며

본고는 17세기의 종친(宗親) 낭원군 이간(朗原君 李儼, 1640-1699)이 창작한 30수의 시조 작품 중 교훈시조 작품 11수의 창작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작품의 구성 및 특징을 살펴 그 가치와 의의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간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화숙(和叔), 호는 최락당(最樂堂)이며, 조선 제14대 왕 선조(宣祖, 1552-1608)의 손자이자 인흥군 이영(仁興君 李瑛, 1604~1651)의 아들이다.¹⁾ 이간은 특히 서예에 능하여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잘 썼다고 알려져 있으며, 『영언(永言)』이라는 가집을 편찬하였다고 하지만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이간은 조선조 종친으로서 30수의 시조 작품을 남겼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작가이다. 그럼에도 이간의 시조 작품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미진한 실정이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이간 시조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여전히 그의 작품을 세밀하게 살피는 본격적인 작품론적 검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1) 이간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최강현, 「이간론」,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309-321쪽.

다. 이에 본고는 이간의 시조 중에서도 작가가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창작한 교훈시조 작품군(群)에 주목함으로써 그 문학적 성과와 장르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전술했듯 이간과 그의 시조 작품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가장 먼저, 이간을 학계에 소개한 최강현의 연구가 있는데, 가계와 생애 및 시조 작품 30수를 제시하고 내용과 표현 기법적인 특징을 각각 살폈다. 특히 내용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회고(懷古)’, ‘요산요수(樂山樂水)’, ‘감군은가(感君恩歌)’, ‘요풍류(樂風流)’, ‘취락(醉樂)’, ‘무상(無常)’, ‘청절(淸節)’, ‘탄로(嘆老)’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 교훈성을 주제로 한” 교훈시조가 11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파악하였다.²⁾

한편, 조태흠은 18·19세기의 훈민시조에 대해 논하며 이간의 훈민시조 작품을 언급하였는데, 6수의 훈민시조 작품 중 특히 ‘부자유친’과 ‘형우제공’의 윤리가 많은 수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음을 밝히며, 이를 ‘효’가 강조되었던 당대 훈민시조 가창의 흐름과 연관지었다.³⁾

최강현의 소개 및 조태흠의 언급 이후 이간과 관련한 연구는 오래도록 부재하였는데, 2010년에 육민수가 이간의 시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육민수는 이간의 생애를 정리하고 그의 시조 작품이 가집별로 수록 및 전승된 양상을 포착하였다. 또 『청구영언』에 수록된 이하조의 발문에서 착안하여 이간의 시조를 크게 ‘질탕산수지간(跌宕山水之間)’, ‘애군도보지원(愛君圖報之願)’, ‘내신자경지의(勅身自警之意)’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종친연에서의 시조 창작 양상도 함께 살피었다. 특히 ‘내신자경지의(勅身自警之意)’에 속하는 12수의 작품들은 본고의 논의와도 연관이 깊은데,

2) 최강현, 위의 논문.

3) 조태흠, 「18·19세기 훈민시조의 변모와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15, 한국문화회, 1994, 147-167쪽.

이에 대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이간 자신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수신과 경계를 위해서도 소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표현 양식 또한 타인을 염두에 두었다고 평하였다.⁴⁾

가장 최근에 진행된 연구는 송태규의 것으로, 『청구영언 진본』, 『해동가요』 계열, 『병와가곡집』, 『청구영언 연민본』, 『가곡원류』 등 시대별 주요 가집들을 대상으로 이간 시조의 수록 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작품이 전승되지 않게 된 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조선 후기로부터 근대까지 작품의 변용 및 전승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승의 변화 지점을 포착하고, 기존의 고정적 전승 개념을 넘어서는 ‘확장적 전승’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간 시조의 전승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⁵⁾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이간이라는 작가의 존재와 작품의 문헌적 가치를 입증하고 분류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시어 및 시구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보정하여 작품론으로서 이간의 시조 작품에 접근하고자 하며, 이때 특히 교훈시조 작품군에 주목해본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이간의 교훈시조 11수이다. 이간의 시조 작품은 그의 가집인 『영언』에 수록되었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전술했듯 현재 전하지 않고, 『청구영언(靑丘永言)』을 비롯한 이후의 가집들에서 산발적으로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30수의 시조 작품이 모두 수록된 『청구영언』의 한글박물관본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⁶⁾

4) 육민수, 「낭원군 이간(朗原君 李偁)의 시조 연구」, 『반교어문연구』 28, 반교어문학회, 2010, 151-180쪽.

5) 송태규, 「최악당(最樂堂)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偁) 시조의 전승 양상에 관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 49, 한국시가문화학회, 2022, 5-29쪽.

6) 본고에서 참고한 자료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천택 편, 권순화·이상원·신경숙·이진희 해제, 『청구영언: 영인편』, 국립한글박물관 2017; 김천택 편, 권순화·이상원·신경숙 주해,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2017.

Ⅱ. 교훈시조 창작의 배경

본격적으로 이간의 교훈시조 작품을 살피기에 앞서, 창작의 배경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간의 생애 및 창작에 대한 사실, 작품 전반의 취지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연보와 함께 상술된 바 있다.⁷⁾ 그러나 이간의 교훈시조 창작과 관련하여 작품을 창작하게 된 배경 및 연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이는 이후 일련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단서가 되므로 살필 필요가 있다. 비록 이간과 관련한 기록에서 교훈시조의 창작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기 어려우나 그의 삶의 면면들이 작품 창작의 배경을 짐작케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지점을 경유하여 이간이 교훈시조를 창작하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1) 노래(시조)의 효용에 대한 인식과 2) 교훈의 홍포(弘布)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청구영언』에 수록된 이하조(李賀朝, 1664-1770)의 <발문(跋文)>, 이재(李穡, 1680-1746)가 쓴 이간의 <묘갈명(墓碣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근거로 삼아 위와 같은 사실들을 해명하고자 한다.

먼저 살필 것은 노래의 효용에 대한 인식으로, 이는 이하조의 <발문>이 단서가 된다. 이하조는 『청구영언』에 이간의 시조 작품에 대한 <발문>을 실었는데,⁸⁾ 이를 쓰게 된 계기를 밝힌 후, 이간의 시조 전체를 ‘산수의 사이에서 높은 흥취를 얻은 것(跌宕山水之間者)’, ‘입금을 사랑하고 거기에 보답하기를 꾀하는 염원(愛君圖報之願)’, ‘몸가짐을 삼가고 스스로 경계하는 뜻을 그때마다 이에 드러낸 것(勅身自警之意, 輒於是而發之)’의 세 부류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때 교훈시조 작품은 마지막 부류인 ‘스스로를 경계하는 뜻을 드러낸 작품’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이하조는 다음과 같이 평한 바 있다.

7) 최강현, 앞의 논문, 1986; 육민수, 앞의 논문, 2010.

8) 김천택 편, 권순희·이상원·신경숙·이진희 해제, 앞의 책, 2017, 128-129쪽.

이른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말 또한 엄정하고 절실하여 늑연히 도를 지닌 이의 말 같으니, 요컨대 모두 노래하여 전할 만하였다.⁹⁾

이하조는 ‘스스로를 경계하는’ 작품이 마치 도를 지닌 이의 말과 같이 엄정하고 절실하며, 따라서 ‘노래하여 전할 만하다’라고 평한 것이다. 이때 이하조는 일련의 작품을 ‘스스로를 경계하는 말’이라고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그것이 단순히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써 타인에게 전해질만 하다고 보았다.¹⁰⁾

위와 같은 정황을 살펴보면, 이간의 교훈시조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자술(自述)의 형태인 것 또한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히 혼자만의 감상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즉 창작의 기저에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타인에게 감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노래로써 ‘전할 만하다’라는 평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교훈시조 창작의 기반이 된 인식의 근저, 그 배경이 되는 사안들을 그의 삶을 통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간의 교훈시조가 ‘노래하여 전할 만하다’는 효용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면,¹¹⁾ 과연 무엇을 전하고자 했으며, 왜 그것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이간이 교훈을 홍보하고자 한 적극적인 모색의 정황을 세 가지 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특히 이간의 시조는 오륜(五倫)을 포함하여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일반적인 유교적 도덕률을 소재로 한 바, 그의

9) 而所謂自警之語，亦嚴正切實，凜然若有道者言，要之皆可歌而傳也。(김천택 편, 권순회·이상원·신경숙·이진희 해제, 위의 책, 128-129쪽.)

10) 관련하여 육민수는 작품에 나타나는 영탄적 표현, 종장의 표현, 청유형의 어휘 등을 근거로 하여, 이것이 “자타(自他)의 수신(修身)과 경계(警戒)를 모두 염두에 둔 표현”(육민수, 앞의 논문, 2010, 169-170쪽.)이라 보기도 하였다.

11) 물론 ‘노래하여 전할 만하다’라는 것은 이간의 작품에 대한 이하조의 평이다. 그러나 이하의 정황을 살펴보면 창작의 주체인 이간 또한 그 효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삶에서 드러난 1) 효행의 중시, 2) 학문 및 강학의 중요성 강조, 3) 유교적 의례와 도덕적 태도의 엄격한 준수의 모습을 검토해본다.

먼저, 이간이 효행을 중시했음은 왕실의 종친으로서 유교적 윤리를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를 구현하고자 했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偁)이 상소(上疏)하기를, “창빈(昌嬪) 안씨(安氏)께서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을 탄생(誕生)하셨는데, 묘도(墓道)에 비(碑)조차 없습니다. 청컨대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의식을 빨리 거행하소서.” 하였는데, 임금(上)이 사체(事體)가 중대(重大)하다 하여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모두 묘도(墓道)에 오히려 드러나게 새길 것을 빼뜨린 것은 진실로 흠사(欠事)이므로, 특별히 명령하여 마땅히 천수(阡隧)에 비석(碑石)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¹²⁾

위의 자료에 따르면 이간은 창빈 안씨(昌嬪 安氏, 1499-1549)의 묘도에 비를 세울 것을 상소하며,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의식을 빨리 거행”할 것을 청하였다. 창빈 안씨는 제11대 왕 중종의 후궁인 반면, 이간은 그보다 후대인 제14대 왕 선조의 증손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가까운 인척 관계를 넘어선다. 그렇기에 이는 왕실 내부의 의례(儀禮)를 바로잡아 유교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孝)의 근본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요청은 숙종으로 하여금 “사체가 중대하다”고 인식하게 했으며, 대신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국 실현되었다. 이는 곧 효에 대한 이간의 인식이 당대 정치적·사상적 담론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효에 대한 이간의 인식은 사회적 교화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데, 다음의 상소에서 살필 수 있다.

12) 『숙종실록』 권11, 7년 3월 17일(경오). “朗原君 偁上疏言, 昌嬪 安氏誕生德興大院君, 而墓道無碑, 請亟舉未遑之典. 上以事體重大, 命議于大臣. 諸大臣皆以爲, 墓道尙闕顯刻, 誠是欠事, 宜特命樹石阡隧, 上從.”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偁)이 소를 올려 영래 도정(瀛萊 都正) 이숙(李湑)의 효행(孝行)을 정표(旌表)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이를 예조(禮曹)에 내려 보냈다. 예조에서는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그의 행적을 자세하게 갖추어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¹³⁾

이간은 영래 도정(瀛萊 都正) 이숙(李湑)의 효행을 정표할 것을 상소로써 청하였으며, 이는 예조(禮曹)와 종부시(宗簿寺)에서 그의 효행 행적을 검토하게 되는 구체적인 절차로 이어졌다. 이때 정표(旌表)는 국가가 개인의 모범적인 행실을 칭송하고 공인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백성들에게 유교적 윤리를 확산시키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단 중 하나였다. 그렇기에 이간이 이숙과 같은 이의 효행을 공론화하고 국가적으로 치하하도록 요청한 것은 개인의 효행을 사회 전체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자 했던 의지의 시사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간은 효를 권면하기 위한 서책을 간행하고자 하였는데, 이간의 상소에 대한 숙종의 답이 수록된 『승정원일기』의 다음 대목에서 살필 수 있다.

『효순사실(孝順事實)』 등 두 책을 간행하여 반포하기를 청하는 것은 그 뜻이야 좋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천하의 일은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비록 『삼강행실』 한 권이라도 과연 사람들마다 실천하게 한다면, 자연히 풍속의 교화에 보탬이 될 것이니, 어찌 서책을 많이 간행하는 일에 달려 있겠는가?¹⁴⁾

13) 『숙종실록』 권16, 11년 1월 17일(정축). “朗原君偁疏, 請旌表瀛萊都正湑孝行. 下禮曹. 禮曹, 請令宗簿寺, 詳具行跡以聞.”

14) 『승정원일기』 386책, 숙종 25년 7월 12일(무신). “孝順事實等兩冊刊布之請, 意非不好, 而凡天下之事, 行之則難. 雖三綱行實一部書, 果令人人踐履, 則自有補於風化, 豈在書冊之多刊乎?”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간의 상소 내용은 남아있지 않으나 그에 대한 숙종의 답을 보았을 때 이간의 주장은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효순사실(孝順事實)』이 효행의 일화를 특화하여 다룬 책임을 고려한다면, 이간이 효를 특히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간은 창빈 안씨의 묘도에 비석을 건립할 것을 청하여 왕실 내에서 효의 예를 다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영래 도정 이숙의 효행을 정표할 것을 상소로 청함으로써 모범적인 효행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효순사실』의 간행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행적은 이간이 효를 개인의 윤리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교화의 중추로 간주하였음을 명백히 한다. 그렇기에 이간에게 있어 효는 더 이상 개인의 자술(自述)이나 자경(自警)에 머무르는 덕목이 아니었으며, 이를 널리 전파할 책무 의식 또한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학문 및 강학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개인적인 학문에 대한 열의 뿐 아니라 종친으로서 국가 전반의 교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식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묘갈명』에서는 이간이 평소에도 도서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를 담박히 지켜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¹⁵⁾ 보다 구체적으로는 강학(講學)의 문제에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원정(李元禎)이 아뢰기를, “종실(宗室)의 강학(講學)에 대해서, 일전에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儁)이 15세에서 30세에 이르기까지를 한도로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¹⁶⁾

이간은 종실(宗室)들의 강학과 관련하여 의견을 내며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삶의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는 이간이 학문을

15) ‘朗原君墓碣’, 「墓碣」, 『陶菴集』 권33. “左右圖書, 淡泊自守.”

16) 『숙종실록』 권9, 6년 2월3일(계해). “吏曹判書李元禎曰: 宗室講學, 頃者朗原君 儁講以十五歲至三十歲爲限矣.”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교화에 힘쓰는 것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유교적 의례 및 도덕적 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자 했던 면모는 ‘가정 내에서의 엄격한 유교적 실천’과 ‘공적인 윤리 확산의 도모’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간은 사적인 영역인 가정 내에서도 유교적 규율을 철저히 지켜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전범을 보였는데, 그의 『묘갈명』에 제시된 몇몇의 일화가 이를 입증한다.

공은 집안 내의 행실이 매우 돈독하였다. 대부인의 병을 시중들 때는 옷의 띠를 풀지 않았으며, 손에 피를 내어 드시게 하였다. 상을 치를 때는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랐고, 또 손수 제의를 써서 자손에게 남겼다. 가옥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고쳐서 덜어내었다. 종일 단정히 앉아있으니, 사람들이 게으른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옷차림은 검소하였고, 빈객과는 접견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좌우에는 도서를 두었으며, 담박하게 지조를 지켰기에 공을 만나는 사람들은 귀한 왕족임을 알지 못하였다. 만년에는 복록이 융성하였으나, 더욱 겸손하게 삼갔다.¹⁷⁾

상술한 바와 같이, 이간은 가정 내 행실에서도 모범적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사소한 규율까지도 엄중하게 준수하며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행동하였던 점과, 검약하고 담박한 태도, 겸손함으로 일관하였던 것에서 확인된다.

17) ‘朗原君墓碣’, 「墓碣」, 『陶菴集』 권33. “公內行甚篤. 侍大夫人疾, 衣不解帶, 血指以進. 持喪一遵朱子家禮, 又手書祭儀, 以遺子孫. 以屋宇過侈, 改而損之. 終日端坐, 人不見惰容. 被服寒素, 不通賓客, 不談時政. 左右圖書, 淡泊自守, 遇之者不知爲貴介公子. 晚年福祿隆盛, 愈益謙慎.”

기묘년(己卯年, 1699년)에 공이 병이 들었는데, 무당과 박수의 기도를 금하였다. 상소를 올려 아홉 조목을 진달하였는데, 제일 먼저 숭검(崇儉)을 권하였다. 또 자손들에게는 시호를 청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¹⁸⁾

뿐만 아니라 그는 병이 든 상황에서도 무속의 관여를 철저히 금하여 유자(儒者)로서의 규율을 지키고자 하였고, 검소하고 소박한 자세를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제에게 잘못이 있다면, 비록 지위가 높더라도 종아리를 때렸으니, 집안은 조정과 같이 엄숙하였다.”¹⁹⁾라는 기록 또한, 가정 내에서 엄정한 질서와 도덕적 교육을 통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교 윤리를 내면화시키는 것에 힘썼음을 입증한다.

한편, 가정의 밖, 사회에서도 이간은 유교적 의례의 정립과 윤리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이간은 상소를 올려 ‘삼위(三位)의 제사(祭祀)’에 관하여 논하고자함과 동시에 ‘승재(僧齋)의 폐단’에 대해서도 임금에게 알려 폐하게 하였다.²⁰⁾ 이는 종친으로서 불교적 요소와 습속을 배척하고 유교적 예제(禮制)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 했던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간은 효행을 중시하고, 학문 및 강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유교적 의례와 도덕적 태도를 엄격히 견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단지 이간 개인의 차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작게는 가정 내에서부터 넓게는 왕실과 민간에까지 나아갔으며, 그것이 ‘시조’라는 대중적인 노래의 형식을 통하여 표출된 것이다. 즉 이간은 교훈시조를 창작함으로써 자신이 국가와 사회를 향해 피력하고자 했던 유교

18) ‘朗原君墓碣’, 「墓碣」, 『陶菴集』 권33. “己卯公有疾, 禁巫覡祈禱. 疏陳九條. 首勉以崇儉. 又戒諸子勿請諡.”

19) ‘朗原君墓碣’, 「墓碣」, 『陶菴集』 권33. “子弟有過, 雖位高亦撻之, 門內肅如朝廷.”

20) 『승정원일기』 386책, 숙종 25년 7월 12일(무신). “三位祭祀事, 自內當考古事而處之. 僧齋一款, 極可怪駭, 有之則罷之.”

적 가치와 삶의 자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며, 위와 같은 삶의 면면이 곧 교훈시조 창작의 배경이 된다.

Ⅲ. 『청구영언』 소재 교훈시조의 지향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창작된 교훈시조 작품을 직접 살피고 논하고자 한다.²¹⁾ 11수의 교훈시조 작품은 한글박물관본 『청구영언』에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192’부터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202’까지 순차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교훈시조가 군집화 되어 수록된 양상은 『청구영언』의 편집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편제에는 이간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는 앞서 살핀 이하조의 발문에서 찾을 수 있다. 전술했듯 이하조는 발문에서 이간으로부터 『영언』이라는 가집을 받았음을 밝히며, 작품 전체를 ‘산수의 사이에서 높은 흥취를 얻은 것(跌宕山水之間者)’, ‘임금을 사랑하고 거기에 보답하기를 꾀하는 염원(愛君圖報之願)’, ‘몸가짐을 삼가고 스스로 경계하는 뜻을 그때마다 이에 드러낸 것(勅身自警之意, 輒於是而發之)’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 『청구영언』에 수록된 작품의 편제 순서 및 주제의식과도 일치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청구영언』의 편집은 『영언』에 따른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조태흠 역시 선행연구에서 조선 당대에 이간의 가집 『영언』이 존재했음을 고려하여, 『청구영언』의 편제는 이간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다.²²⁾ 즉 이간은 일정한 목적 하에 11수의 교훈시조 작품을 창작 및 편제한 것이다.

11수의 교훈시조 작품은 연시조로 지어진 것은 아니며, 그 창작 정황과

21) 이하 작품의 원문은 ‘김천택 편, 권순희·이상원·신경숙·이진희 해체, 앞의 책, 2017.’에 의거하되, ‘김천택 편, 권순희·이상원·신경숙 주해, 앞의 책, 2017.’을 참고하였다.

22) 조태흠, 앞의 논문, 1994, 15쪽.

관련한 이간의 진술도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오륜(五倫)이 순차적으로 나열된다는 점,²³⁾ 각 작품의 내용이 서로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내러티브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간의 교훈시조 작품 11수를 유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가 교훈시조 창작을 통해 의도한 바, 목적인 바를 살피고자 한다. 교훈시조 11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표 1).²⁴⁾

작품 초장	청구영언 가번
天理를 알작시면 天道 라타 누 모르리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192
德으로 일삼으면 제 分인 줄 제 모로며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193
말슴을 고회여 내면 결을 일이 바히 업고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194
어저 내 말 듯소 君子工夫 다흔 後에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195
사름이 삼긴 後에 天性을 가져 이셔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196
어버이 날 나흐셔 어질과자 길러 내니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197
우리 몸 갈라 난들 두 몸이라 아지 마소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198
男女有別흔 줄 사름마다 알년마는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199
저무니 어룬 뵈셔 간 되마다 츠레곳 알면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200
늡으로서 親흔 사름 벗이라 닐러시니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201
鄉黨은 禮 브르니 어너 사름 無禮흔리	『청구영언』(한글박물관본) #202

표에 제시된 11수의 작품 중 ‘192번 작품’부터 ‘196번 작품’까지는 도덕적

23) 이간의 시조에 나타나는 오륜은 『맹자(孟子)』와 달리 ‘군신유의(君臣有義)’가 빠져있고, 대신 형제의 ‘우애(友愛)’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장 2절에서 상술한다.

24) 이하 본문에서 작품을 칭할 때는 ‘몇 번 작품’이라 한다.

삶의 자세와 실천에 대한 내용이고, '197번 작품'부터 '201번 작품'까지는 오륜을 주제로 한다. 마지막 작품인 '202번 작품'은 '향당(鄉黨)'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따라서 앞선 작품들과는 다시금 구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도덕적 삶의 자세와 실천', '오륜', '향당'으로 분류한 후, 각각에 해당하는 작품 및 큰 주제 하에서의 내러티브를 살피고자 한다.

1. 도덕적 삶의 자세와 실천의 당부

가장 먼저 수록된 5수의 시조 작품은 수신(修身)과 학문(學問), 언행의 절제, 선악의 분별 등 개인적인 도덕 수양을 주제로 한다. 이는 이후 '오륜'과 '향당'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사회적 교훈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과도 같다. 작품의 전체 배열상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5수의 작품이 개인적이며 보편적인 교훈을 제시하여 유교적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은, 이간의 교훈시조가 단순히 산발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도덕 실천에 대한 단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섯 수의 시조 작품은 다시 크게 '192번 작품'부터 '194번 작품'까지의 세 작품, 이후의 '195번 작품', '196번 작품'의 두 작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⁵⁾ 특히 '192번 작품', '193번 작품', '194번 작품', 세 작품은 초장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함께 살필 만하다.

25) 이때 '193번 작품', '194번 작품', '195번 작품'은 '학문(學文)', '공부(工夫)'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학문의 중요성, 제대로 된 학습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함께 살필 수 있기도 하다. 그런데 공부와 학문에 대한 강조는 이간의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기에, 이 부분에서 그 특징만을 특화하여 살피지는 않기로 한다.

天理를 알작시면 天道ㅣ라타 뉘 모르리
忠孝 大義는 修身에 들년나니
事業을 節義로 行호면 그 올흔가 호노라

德으로 일삼으면 제 分인 줄 제 모로며
微忿을 저버 보면 窒慾인들 뉘 모르리
學文을 보뵈로 아라야 去取適中 호리라

말슴을 글회여 내면 결을 일이 바히 업고
無逸을 초하호면 貪慾인들 이실소나
一毫ㅣ나 밧기 일 호면 헛工夫ㅣ나 호노라

위의 세 작품의 초장은 '~하면 ~하다.'라는 조건절로 구성되어 있다. 세 구절은 모두 'A하면 B할 것이다.' 또는 'A하면 (어찌) B하지 않겠는가'라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어, 화자가 제시하는 특정 행동(A)이 불러오게 될 당위적인 결과(B)를 강조하게 되는 효과를 지닌다.

- 1) 天理를 알작시면 天道ㅣ라타 뉘 모르리
- 2) 德으로 일삼으면 제 分인 줄 제 모로며
- 3) 말슴을 글회여 내면 결을 일이 바히 업고

이때의 '특정 행동(A)'은 각각 '천리(天理)를 아는 것', '덕(德)으로 일삼는 것', '말슴을 가리어 내는 것'이며, 그 결과는 '천도(天道)를 모를 수 없는 것', '제 분수(分)를 모를 수 없는 것', '겨를 일이 전혀 없는 것'이 된다. 즉 이간이 앞의 세 작품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가치는 천리와 덕, (성현의) 말슴이 되는 것이다.

한편, 각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2번 작품'의 초장에서는 '천리(天理)'를 알고 있다면 '천도(天道)'를 모를 리 없다고 반문

하며 그 필연성을 강조한다. 이어 중장에서는 ‘충효(忠孝)’와 ‘대의(大義)’ 등의 유학적 핵심 가치가 궁극적으로 ‘수신(修身)’에 달려있음을 역설하며 그 중요성을 부각한다. 종장에서는 보다 실천적인 영역으로 나아가 사업(事業) 또한 절의(節義)로 행해야 함을 당부하는데, 이는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조차 절개와 의리를 견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후의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학문(學文)’, ‘공부(工夫)’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학문의 중요성, 올바른 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두 작품이 세부적으로 중시하는 덕목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193번 작품’을 살펴보면, 초장에서는 ‘덕(德)’을 근본으로 일삼아 자신의 분수를 인식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어 중장은 초장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 ‘징분(懲忿)’을 헤아려 본다면 ‘질욕(窒慾)’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역(周易)』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분노를 다스린다면 욕심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의미이다. 특히 종장에서는 ‘학문’을 보배로 여겨야만 ‘거취적중(去取適中)’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곧 학문을 통해서만 앞서 제시된 ‘덕(德)’의 실현은 물론, ‘징분질욕(懲忿窒慾)’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이간은 모든 윤리적 실천의 기반으로 학문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194번 작품’에서는 신중하게 말을 가려 한다면 다툼 일이 전혀 없을 것이며, ‘무일(無逸)’, 즉 게으르지 않다면 ‘탐욕(貪慾)’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종장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一毫)이라도 이에 벗어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헛공부(헛工夫)’, 곧 올바른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단언한다. 결국 ‘194번 작품’은 올바른 학습을 통해 언행을 신중히 하고, 나태함을 경계하며, 탐욕을 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두 작품은 각각 ‘학문에 대한 당부’ 및 ‘선악의 분별’을 주제로 하는데, ‘어저 내 말 듯소’라는 표현과 ‘공맹(孔孟)’이라는 어휘를 활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두 작품은 앞선 세 작품을 종결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후 오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를 연결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즉 작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를 먼저 밝힌 후,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뒷받침하고 심화하는 구조라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살필 '195번 작품'은 학문에 대한 당부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어저 내 말 듯소 君子工夫 다흔 後에
 死生을 닐 알관디 老小로 드롤손가
 그려도 餘日이 이시니 學文이나 흐리라

'195번 작품'은 "어저 내 말 듯소"라는 청유형 어조로 시작하며, 이는 타인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 의도를 드러낸다. 화자는 초장과 중장에서 '군자공부(君子工夫)'를 마친 이후에도 삶과 죽음의 문제는 예측할 수 없기에, 나이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다투어 학문을 게을리 하거나 미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장에서는 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은 날(餘日)이 허락되는 한,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즉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학문에 몰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실천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도덕적 삶의 자세와 실천'을 주제로 한 작품군 중 마지막으로 살필 '196번 작품'은 '선악의 분별'에 대한 당부를 주제로 한다. 앞서 수신의 중요성과 학문의 가치에 대해 논한 후 선악에 대한 분별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곧 수양과 학문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지점임을 시사한다.

사람이 삼긴 後에 天性을 가져 이서
 善惡을 分別흐면 孔孟인들 부를소나
 이 바긔 說話 만흐니 그를 몰라 흐노라

초장과 중장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天性)’을 지니고 있으며, 만일 그 천성을 통해 ‘선악(善惡)’을 분별할 수 있다면, 공맹(孔孟)이라도 부럽지 않을 것이라 단언한다.²⁶⁾ 다시 말해 이는 인간은 본인이 지닌 천성을 잘 발휘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어 중장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설화(說話)’가 많더라도 그것을 외면하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192번 작품’부터 ‘196번 작품’까지의 다섯 작품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의 교훈을 다루면서도, 주제적으로 ‘내면의 수양(천리와 덕)’, ‘학문의 수행’, ‘선악의 분별’이라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조건절로 구성된 세 작품, ‘어저 내 말 듯소’로 시작하는 작품, ‘공맹’을 언급하는 작품의 배치는 단순한 나열이 아닌 유기적인 의미 배열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다섯 작품은 이간 교훈시조 작품 전체의 기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후 오류와 향당으로 확장되는 도덕적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오류(五倫)의 취택과 전달

이어지는 5수의 작품은 유학에서 중시하는 다섯 가지의 윤리, ‘오륜’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맹자』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중 ‘군신유의’를 소재로 한 작품이 부재하며, 대신 형제간의 우애(友愛)에 대한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편재와 관련하여 뚜렷한 정황이나 명확한 이간의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의 시조 작품 30수 전반의 맥락을

26) 이때의 공맹은 이후 전개될 오류를 주제로 한 작품들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전술한 이하조의 발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충(忠)에 대한 시조 작품(愛君圖報之願)은 큰 축을 이룬다. 그렇기에 별도로 구성된 교훈시조 작품군에서는 ‘군신유의’에 대해 반복하여 언급하기 보다는, 효에 이어 형제의 우애의 중요성을 설파하고자 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간이 상정한 교훈시조의 향유층을 고려하여 그 까닭을 찾을 수도 있다. 후술하겠지만, 교훈시조 작품군 중 마지막 작품인 ‘202번 작품’에서 이간은 향당(鄉黨)의 백성들, 특히 소년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한다. 이 작품이 교훈시조 전체를 갈무리함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곧 교훈시조 작품군 전반의 향유층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향촌 사회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 ‘형제의 우애’는 ‘충’이라는 가치만큼 중요하며, 때로는 그보다 우선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간은 ‘부자유친’에 이어 ‘형제우애’의 덕목을 설파하고자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물론 ‘군신유의’가 당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덕목임은 분명하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 윤리의 정립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는 종친이라는 이간의 신분적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형제간의 우애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왕실에서는 형제 사이의 불화가 곧 국가적 위난으로 이어질 여지를 지니기도 하기 때문이다.²⁷⁾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간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가치들을 취택하여 오류의 덕목을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²⁸⁾

27) 그 구체적인 실례로써 세종대에는 <연형제곡>이라는 경기체가계 악장을 제작함으로써 형제간의 우애를 형상화하고 그 도리를 권면하기도 했다. (김승우, 「경기체가계 악장 <연형제곡(宴兄弟曲)>의 제작 배경과 지향」, 『동양고전연구』 65, 동양고전학회, 2016, 117-147쪽.)

28) 한편, 하윤섭은 17세기 문인들의 가훈서(家訓書)를 살핀 후, 그들이 오류를 설파하는 와중에 ‘군신유의’ 조항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음을 찾아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효(孝)를 곧 충(忠)의 근본으로 보아, 아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다한 후에 자연스럽게 임금을 섬기는 의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한 집안의 윤리를 바로잡는 것(齊家)을 곧 나라를 다스리는 도(治國·平天下)와 등가화 했기에,

가장 먼저 살필 작품은 오륜 중 첫 번째 가치인 ‘부자유친’을 소재로 한 ‘197번 작품’이다.

아버이 날 나호셔 어질과자 길러 내니
이 두 분 아니시면 내 몸 나셔 어질소나
아마도 至極 恩德을 못내 가파 흐노라

이 작품은 자신을 낳아 길러낸 존재인 아버이의 역할과 은혜를 주제로 한다. 특히 종장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지극한 은덕(至極 恩德)’이라 명명하며, 그것은 값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표현한다. 한편, 초장과 중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질다’라는 어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장에 따르면 부모는 자신에게 육체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어질게’ 길러내는 존재이며, 중장에서도 부모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세상에 나올 수도, ‘어질 수도’ 없었을 것이라 한다. 이러한 표현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은혜가 막중함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부모의 역할에 당위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신을 어질게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며,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어질게 길러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이간이 생각하는 부자유친의 의미가 된다.

효에서 이어지는 가치는 형제 간의 우애이다. 두 관계는 가족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그렇기에 두 작품의 초장에는 공통적으로 가족 관계의 고유의 행위인 ‘낳다’라는 어휘가 등장하기도 한다.

제가의 영역에서는 가문 내에서의 윤리(부자, 형제, 부부)만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하운섭, 『조선조 오륜시가의 역사적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231-249쪽.) 이는 가훈서의 특징일 수도 있겠으나, 위의 사례는 17세기의 문인들이 오륜을 취택하여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선별적으로 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 몸 갈라 난들 두 몸이라 아지 마소
 分形連氣 訶니 이 니론 兄弟니라
 兄弟야 이 뜻을 아라 自友自恭 訶자스라

초장에서 ‘우리’로 엮인 형제는 비록 다른 개체로서, ‘갈라 난’ 존재이지만, 화자는 그것을 ‘두 몸’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다. 이때 ‘우리’라는 주어와 ‘아지 마소’라는 종결 어미는 곧 이간이 특정한 대상을 상징하여 작품을 창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신의 혈족인 형제를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여타의 형제들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중장에서도 역시 초장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형제란 ‘분형연기(分形連氣)’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이는 안지추(顔之推, 531-591)의 『안씨가훈(顔氏家訓)』 제3편 ‘형제’에서 원용한 표현으로,²⁹⁾ 『안씨가훈』에는 ‘형제란 같은 부모로부터 육신(肉身)을 나누어 받고 기(氣)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兄弟者, 分形連氣之人也.)’라는 문장이 있다.³⁰⁾ 결국 초장과 중장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형제는 한 몸,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다. 이어 종장에 이르러서는 ‘형제(兄弟)’를 직접적으로 호명하며 자신이 당부한 ‘뜻(뜻)’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아 응당 ‘자우자공(自友自恭)’, 즉 스스로 우애하고 스스로 공경해야 함을 당부하며 작품을 끝맺는다.

다음은 ‘부부유별’이다. 앞서 부모와 형제가 일차적이고 태생적인 혈족의 관계라면, 부부는 그와는 분명 구분된다.

29) 「안씨가훈(顔氏家訓)」, 『동양고전종합DB - 동양고전번역서』, <https://db.cyberseedang.or.kr/front/main/main.do>, 접속일: 2025.12.22.

30) 이 표현은 『소학(小學)』에서도 살필 수 있는데, 『소학』에는 ‘형제(兄弟)는 형체를 나누고 혈기를 연한 사람이니(兄弟者는 分形連氣之人也니)’라는 문장이 있다.(성백효, 『소학집주(현토완역)』, 전통문화연구회, 2011, 318쪽.)

윤리는 ‘관계의 윤리’로서, ‘어른과 아이 사이의 윤리’, ‘친구 사이의 윤리’가 소재가 되며, 그 시작은 ‘장유유서’이다.

저무니 어른 피셔 간 디마다 츠레곳 알면
無知흔 愚氓들도 아니 아지 못흐려니
흐믈며 人倫을 알려 흐면 이 아니코 어이리

초장과 중장은 조건절로 연결되는데, 만약 젊은이가 어른을 모시고 간 데마다 차례를 안다면, ‘어리석은 백성들(無知흔 愚氓)’조차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장유유서를 실천한다면 무지한 백성들조차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아니 알지 못하다’라는 이중부정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어 중장에서는 ‘인륜(人倫)’을 알고자 한다면 장유유서를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그것이 인륜의 기본이라고 밝힌다. 이때 중장의 이중부정의 표현과 종장의 ‘인륜’이라는 단어의 선택을 보면, 이간은 장유유서의 가치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오륜을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은 친구 사이의 윤리, ‘붕우유신’을 주제로 한다.

늬으로써 親흔 사름 벗이라 닐러시니
有信곳 아니흐면 사귄 줄이 이실소냐
우리논 어진 벗 아라셔 責善을 바다 보리라

33) 나이에 대해 언급한 정황은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5번 작품’의 중장에서는 ‘死生을 닐 알관디 老小로 드톨손가’라고 한 바 있다. 이는 이간이 장유유서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이간이 노년에 일련의 작품을 창작했을 가능성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초장에서는 남으로서 친한 사람을 ‘벗’이라고 규정한다. 즉 친구는 자기 자신도 아니고, 앞서 살핀 부모나 형제, 부부의 가족 관계에도 속하지 않는 ‘남(남)’이다. 그럼에도 친한 존재임은 분명한데, 중장에서는 그 사귀의 조건을 ‘유신(有信)’이라 본다. 즉 친구란 가깝고 친한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본인도 가족도 아닌 남이기에 만약 신의가 없다면 사귈 수가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 중장은 ‘우리’는 어진 벗을 알기에 ‘책선(責善)’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마무리된다. ‘책선’에 내포한 의미는 진정한 친구, 어진 친구라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 붙은 조사 ‘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우리는)’이라는 표현에는 배타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벗의 범위를 한정하여 자부심을 표출하는 것인 한편, 동시에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들이 방만하게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다짐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

3. 향당의 윤리와 책무 의식

이하에서 살필 작품은 인간의 교훈시조 작품군 중 마지막 작품이다.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이 작품은 앞선 개인적인 도덕적 수양과 오류의 실천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사회적 영역을 제시하며, 11수의 교훈시조 작품군 전반을 마무리하는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

鄉黨은 禮 브르니 어니 사람 無禮호리
無知호 少年들이 年齒를 제 몰라도
그러나 人形을 가져시니 비화 알가 호노라

초장에서는 ‘향당(鄉黨)’이 예의 바른데, 어느 사람이 ‘무례(無禮)’ 하겠느

나고 확신하며, 공동체 자체가 예를 지향하는 규범적 공간임을 명시한다. 이는 향촌 사회의 질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백성들이 예의를 따라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중장과 종장에서는 ‘연치(年齒)’를 모르는 무지한 소년들일지라도 ‘인형(人形)’을 가졌다면, 즉 사람이라면, 마땅히 배워서 예를 알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한다. 이는 인간의 교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자, 배우고자 한다면 능히 도덕적 실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작품은 초장, 중장, 종장에 각각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초장은 ‘향당’, 중장은 ‘소년’, 종장은 ‘배움’이 그것이다. 즉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범위는 향당, 대상은 소년들, 그 구체적인 사안은 ‘배움의 중요성’이 되는 것이다. 앞서 살핀 다른 작품들과 달리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간간이 이야기했던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언급했다는 지점에서 이 작품은 앞선 교훈시조 작품 전체를 통괄하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향당을 소재로 한 시조 창작은 중친인 이간의 신분과 일반적인 사대부의 창작 경향을 고려할 때 특이성을 갖는다. 만약 향촌사족이나 지방관의 신분이라면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은 이간이 향당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창작한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는 이간의 행적을 통하여 추측해볼 수 있다. 앞서 2장 ‘교훈시조 창작의 배경’에서 살피었듯 이간은 효행의 사례를 정표할 것을 상소하거나, 효행의 사례를 제시한 『효순사실』의 간행을 청하기도 하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상제(喪制)를 받아들여 따르게 할 것을 청하였다는 기록 또한 살필 수 있다.³⁴⁾ ‘정표’와 ‘『효순사실』의 간행’을 청하고, ‘백성들에게까지도 상제를 권면’한 정황들은 이간의 관심이 왕실부터 민간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쳤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34) 『승정원일기』 386책, 숙종 25년 7월 12일(무신). “小民勸服喪制, 宗班兼帶五衛將事, 令該曹稟處, 卿其安心勿辭, 調理行公.”

배경을 고려한다면, 위의 작품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향촌 사회(향당)에까지 유교적 가치를 전파하고자 했던 이간의 적극적인 책무 의식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나가며

이상에서는 낭원군 이간이 창작한 시조 30수 중 교훈시조 11수에 주목하여 창작 배경을 검토하고, 개별 작품의 내용과 지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교훈시조 창작의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이간의 생애를 통해 살필 수 있는 ‘노래(시조)의 효용에 대한 인식’과 ‘교훈의 홍보에 대한 적극적 모색’,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해 보았다. 특히 이하조의 <발문>, 이재가 쓴 <묘갈명>,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을 살피었다. 그 결과, 이간이 효행을 중시하였다는 것과 학문 및 강학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실천하고자 했다는 것, 삶에서 유교적 의례를 엄격히 준수하고자 했던 행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간이 교훈을 사회적으로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책무 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그 인식이 시조라는 대중적인 형식을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간의 교훈시조 작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피었는데, ‘192번 작품’부터 ‘196번 작품’까지의 ‘도덕적 삶의 자세와 실천의 당부’, ‘197번 작품’부터 ‘201번 작품’까지의 ‘오륜의 취택과 전달’, ‘202번 작품’의 ‘향당의 윤리와 책무 의식’으로 나누어 보았다. 일련의 작품은 그 수록의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간의 의도에 따라 군집화 되었으며, 유기적인 흐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도덕적 삶의 자세와 실천’에서 천리, 덕, 언행의 절제, 학문 등 개인적 도덕 수양에 집중하여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오륜’에 나아가서는 부자유친, 형제우애,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의 순으로 윤리적 질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실천을 당부하였다. 마치

막으로 '향당'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앞선 개인적 수양과 오류의 실천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교화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간의 교훈시조 11수는 개인적 수양에서 시작해 오류를 거쳐, 향촌 사회의 질서 확립으로 나아가는 내러티브를 지니며, '도덕적 이념의 공포'라는 일념 하에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완결성 있는 구조적 구성과 11수라는 적지 않은 작품의 수는 이간이 교훈시조를 창작한 동기가 단순히 전통을 따르거나 관념적인 자의식을 충족하기 위함이었다고는 보기 어렵게 만든다. 즉 그의 시조 창작은 종친으로서의 책무 의식과 실제적인 교화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그동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간의 시조 작품에 주목하여 선행연구의 성과를 보정하고, 교훈시조 작품군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적 검토를 수행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양한 기록을 경유하여 교훈시조 창작 배경을 규명하고, 그 배경 하에 일련의 작품을 해석한 시도 또한 유의미한 지점이다.

그런데 나아가 교훈시조 장르의 사적 맥락 하에서 17세기 이간의 작품이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통시적인 흐름 또한 주목해 볼만 하다. 특히 조선조 교훈시조의 주된 창작 계층이 사대부 집단이었음을 고려해본다면, 종친인 이간의 작품이 그들의 것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필 필요 또한 있다. 본고에서 미진했던 위와 같은 사안들은 후속 논의에 맡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조선왕조실록』

→ 「조선시대 사료 DB: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접속일: 2025.11.1.

『승정원일기』

→ 「조선시대 사료 DB: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sjw.history.go.kr/main.do>>, 접속일: 2025.11.1.

김천택, 『청구영언』

→ 김천택 편, 권순희·이상원·신경숙·이진희 해제, 『청구영언: 영인편』, 국립한글
박물관 2017.

→ 김천택 편, 권순희·이상원·신경숙 주해,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2017.

『小學』

→ 성백효, 『소학집주(현토완역)』, 전통문화연구회, 2011, 318쪽.

李穡, 「朗原君墓碣」, 「墓碣」, 『陶菴集』 권33.

→ 「한국문집총간: 도암집(陶菴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접속일: 2025.11.1.

2. 논문 및 단행본

김승우, 「경기체가계 악장 <연형제곡(宴兄弟曲)>의 제작 배경과 지향」, 『동양고
전연구』 65, 동양고전학회, 2016.

송태규, 「최악당(最樂堂)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儼) 시조의 전승 양상에 관하
여」, 『한국시가문화연구』 49, 한국시가문화학회, 2022.

육민수, 「낭원군 이간(朗原君 李儼)의 시조 연구」, 『반교어문연구』 28, 반교어문
학회, 2010.

이문주, 「『주자가례』의 조선 시행과정과 가례주석서에 대한 연구」, 『유교문화연

- 구』 16,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0.
- 조태흠, 「18.9세기 훈민시조의 변모와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15, 한국문학회, 1994.
- 최강현, 「이간론」,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 하운섭, 『조선조 오륜시가의 역사적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A STUDY ON THE DIDACTIC SIJO OF
NANGWONGUN YI GAN

MIN KYEONGSEO (MIN, KYEONG SEO)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literary value and significance of Nangwongun Yi Gan (李倨, 1640 - 1699), a royal kinsman (Jongchin) of the 17th century, by closely analyzing the compositional background of his eleven didactic sijo poems—selected from his thirty extant works—and by examining their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The background of Yi Gan's didactic sijo composition is explored through historical sources such as Yi Ha-jo's postscript (Balmun) in Cheongguyeongeon, Yi Jae's epitaph (Myogalmyong),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This investigation reveals that Yi Gan's life emphasized filial piety, the promotion of learning (ganghak), and the strict observance of Confucian ritua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is poetic motivation stemmed not from a mere conceptual self-awareness but from a profound sense of duty to disseminate Confucian virtues throughout both the royal household and broader society. The eleven didactic sijo, grouped as a cluster in Cheongguyeongeo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hematic sections: exhortations on moral life and practice, the selection and transmission of the Five Cardinal Relationships (Oryun), and the ethic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local community (Hyangdang). This

structural framework effectively illustrates a progression of moral ideology, where ethical practice begins with self-cultivation (susin), develops through the Oryun, and ultimately extends into the social sphere of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ddresses the gap in existing scholarship on Yi Gan's sijo and presents a comprehensive textual analysis of his didactic sijo corpus.

Key Words : Nangwongun, Yi Gan, Royal Kinsfolk(Jongchin), Didactic Sijo, Oryun, *Cheonggyeongeon*, 17th Century